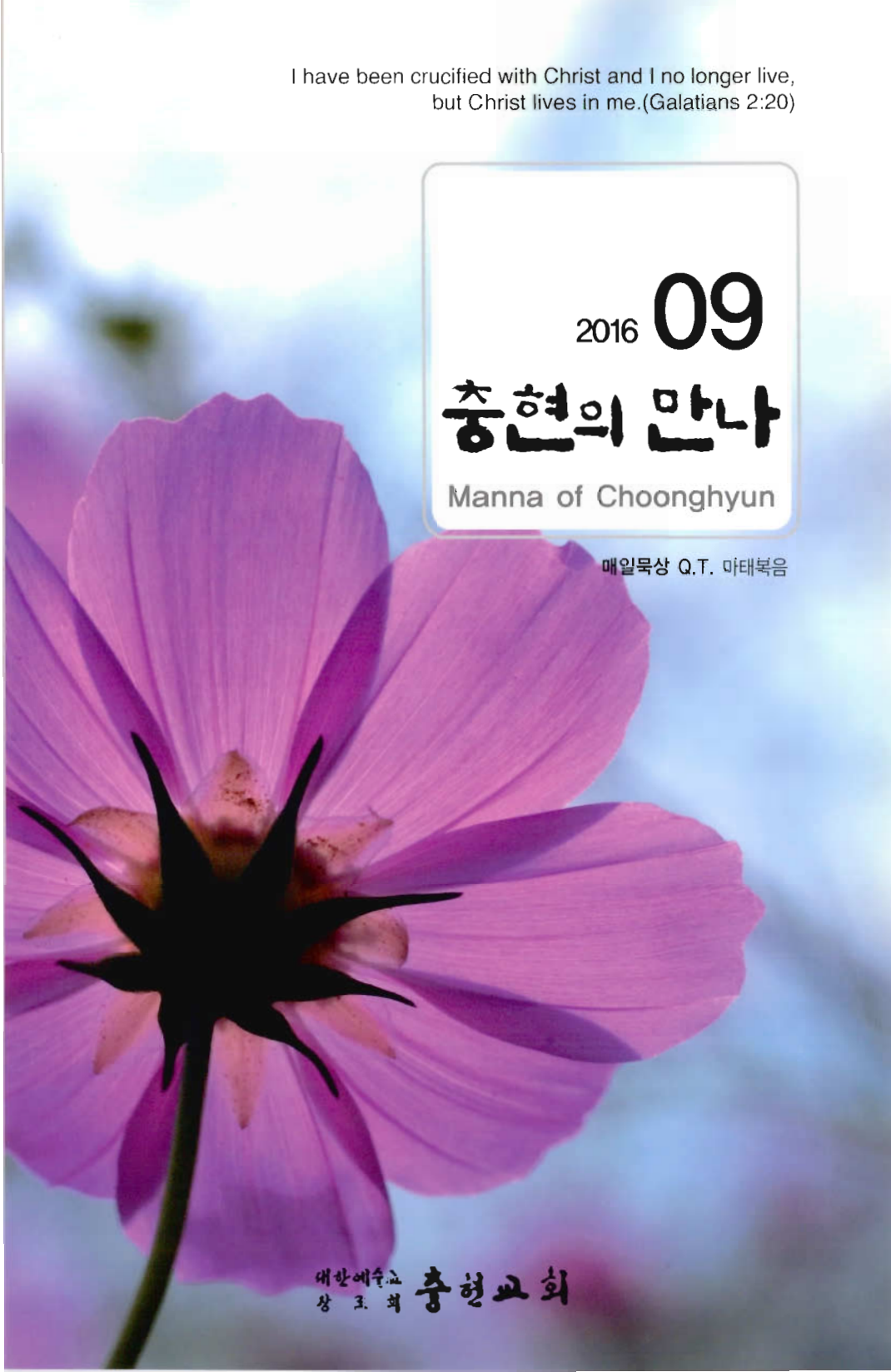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2016 09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마태복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2 9월 일정표

4 매일묵상 사용안내

6 기도제목표

7 매일묵상 Q.T.

69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9 2016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8교구	2 9교구	3 전교인
4 전교인 제6차 성찬식 교회설립기념주일(03주년)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5 전교인	6 16교구	7 6교구	8 12교구	9 3교구	10 전교인
11 전교인	12 전교인	13 11교구	14 8교구	15 17교구	16 5교구	17 전교인
18 전교인	19 전교인	20 13교구	21 14교구	22 15교구	23 2교구	24 전교인
25 전교인	26 전교인	27 7교구	28 4교구	20 10교구	30 1교구	

제10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주요 일정

9월 4일

제6차 성찬식
교회설립기념주일(63주년)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9월 26~30일

제10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9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기 도 제 목

1.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4.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5.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6.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7.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8.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인도하소서.
9. 우리 사회에 만연한 퇴폐와 향락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취게 하소서.
10.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본문 마태복음 12:22~37 찬송가 207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할 자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귀신 들려서 보지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지적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을 부인한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비난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잣대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역사를 왜곡하고 저항하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리심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
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
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
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
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
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31] 그
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
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
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
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 나무
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
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
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
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
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
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2일 금요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본문 마태복음 12:38~50 찬송가 221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 적대감을 표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은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완고한 이 세대를 묘사합니다. 더러운 귀신과 빈집 비유는 선지자와 왕보다 크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무엇이 그 새로운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11~12장에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그룹의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마태는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악한 동기와 교만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만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 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본문 **마태복음 13:1~9** 찬송가 546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 씨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곳에 떨어진 씨는 푸석푸석하고 얇은 토양에 쉽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태양의 열기에 시들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돌밭에 떨어진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빠르게 자라나는 가시떨기는 약한 싹을 결국 짓눌러 죽여 버립니다. 어떤 씨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인가? 흙이 얕은 돌밭인가? 가시떨기 위인가? 좋은 땅 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본문 **마태복음 13:10~30** 찬송가 **336장**

》》 본문 해설

본문은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묻고, 이에 대해 답을 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었지만,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다고 답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6장 9~10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큰 복이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 함으로 천국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 한 밭 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듯이,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항상 깨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
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
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
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
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
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
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
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
였느니라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
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
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본문 마태복음 13:31~43 찬송가 357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밀가루 서 말 속에 넣어 반죽을 부풀게 만들는 누룩과 같습니다. 비록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없다면 반죽은 부풀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씨가 우리 심령에 심어지면 그 씨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나 새들을 위해 가지를 빌려주듯이, 심령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리듯이, 비록 작은 양이라도 천국의 누룩이 삶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게 되지만, 추수 때에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섞여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지막 때에 속아져서 풀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 안의 천국의 생명,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살아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
라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
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
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
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
이라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
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
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
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
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본문 마태복음 13:44~58 찬송가 94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숨겨둔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어떤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드디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분류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이처럼 천국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 했지만,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믿는 자만이 갑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드는 하루 되십시오.

》》》 기도 제목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하소서.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
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
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
니라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
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
서 울며 이를 갈리라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
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
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3 예
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
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
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
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
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본문 마태복음 14:1~12 찬송가 252장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분봉 왕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예수이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헤롯이 그의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처음부터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해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추는 춤을 기뻐한 그는 그녀가 청한대로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헤롯은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의로운 요한을 옥에 가두는 또 다른 불의를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로운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이렇듯 죄는 더 큰 죄악을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약 1:15).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하여져 더 악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합니다(잠 16:18). 신명기 30장 19~20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 기도 제목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1]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8일 목요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본문 **마태복음 14:13~21** 찬송가 390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 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무리를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명하시고,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주었을 때, 남자만 오천 명이 먹었고, 열두 광주리나 남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동역자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음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야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본문 **마태복음 14:22~36** 찬송가 **413장**

》》》 본문 해설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찾아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은 자신임을 알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만일 주가 맞으시면 자신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길 간청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갔습니다. 살려달라는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람과 물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도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드는 상황 속에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만을 의지하는 하루 되십시오.

》》》 기도 제목

구원자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
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
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
난을 당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
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
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
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로소이다 하더라 34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 곳 사
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
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
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10일 토요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본문 마태복음 15:1~20 찬송가 252장

››› 본문 해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을 잘 지키는 그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지키는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말만 하면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장로들의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먼 자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는 로마서 14장 23절과 같이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 기도 제목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2]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11일 주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본문 **마태복음 15:21~28** 찬송가 **486장**

》》》 본문 해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냉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담은 호칭으로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 나라들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에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을 볼 때(28절), 예수님의 냉담한 거절은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하며 진실한지 시험하시려고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야로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8:10)과 함께 높이 칭찬하심으로, 자신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을 덧입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본문 마태복음 15:29~39 찬송가 372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메시야로서의 치유사역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언급한 장애인들이 고침 받은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야의 치유사역과 같습니다(사 35:5~6).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31절) 영광을 돌린 것을 볼 때 이곳이 이방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의 딸을 고쳐 주신 사건(21~28절)과 함께 이방인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를 예수님은 굶겨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따라나선 길이 피곤과 배고픔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사천 명 넘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떡을 이방인 여자에게도 주신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성찬을 허락하십니다.

〉〉〉 기도 제목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열방을 품게 하소서.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
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
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
시니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
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
라 33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
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
늘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
게 주매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
며 38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39 예수께서 무
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본문 마태복음 16:1~12 찬송가 207장

》》》 본문 해설

표적을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거듭 체험했으면서도,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 때문에 다시 걱정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 금방 잊어버리고 염려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이 땅의 '떡'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 **마태복음 16:13~20** 찬송가 **96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선지자로, 세례 요한으로 인식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물으시고, 이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아직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리라' 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야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 속한 참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신 메시야적 교회 공동체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서 철저히 계시에 붙들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15일 목요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본문 마태복음 16:21~28 찬송가 452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고백을 어렴풋이 했지만, 그분이 가시는 길에 대해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한, 온 세상과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이란 단순히 하늘에서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자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아 그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단 7:14).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를 인식하며, 오늘 내 앞에 놓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권능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본문 **마태복음 17:1~13** 찬송가 **94장**

››› 본문 해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은' (단 7:9) 하나님의 빛나는 옷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메시야 시대에 일어날 "나와 같은 선지자", "선지 엘리야", "두 증인"(신 18:15~18; 말 4:5~6; 계 11:3~11)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야이심을 확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은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9절).

››› 기도 제목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져오실 영광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 말씀만 듣게 하소서.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17일 토요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본문 마태복음 17:14~21 찬송가 357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17절)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고통 어린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을 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이처럼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의 무력한 모습은 믿음이 적은 탓입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말씀에 확실히 순종하는 믿음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 (없음)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문 **마태복음 17:22~27** 찬송가 **340장**

》》》 본문 해설

성전세는 출애굽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린 생명의 속전입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반 세겔씩 바쳤는데 그 돈은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세를 받아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면서도 성전세를 납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수난과 죽음이라는 메시야적 과업을 앞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야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마찰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세를 납부하시되 제자들에게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야 되심을 분명히 인지시키시기 위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세 납부에 필요한 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순종하셨다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또한 주님께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벧전 2:13).

》》》 기도 제목

세상의 법에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 제도에 순복하게 하소서.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19일 월요일

어린 아이와 같이

본문 마태복음 18:1~14 찬송가 564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1절)"는 그들의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와 또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높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세심히 돌보십니다.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14절). 마태는 이 비유를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까지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10절)에 이어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공동체 안에서 낯선 자나 낙오된 자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으로 공동체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고 모두 환영받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없음) [12]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본문 **마태복음 18:15~35** 찬송가 **302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세 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베드로는 일곱 번 용서하는 것은 매우 관대한 태도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용서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용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자기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절대 용서치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단순히 내가 용서받으려 억지로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거룩함과 사랑으로 회개한 지체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
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
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
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
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
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
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
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
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
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
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
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21일 수요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본문 마태복음 19:1~12 찬송가 604장

》》》 본문 해설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모세의 다른 글(창 1:27, 2:24)을 인용하여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설명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녀를 지으시고(창 1:27) 결혼을 통해 둘을 "한 몸"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본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좇아 손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혼 생활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거나 혹은 살고 있습니까? 둘이 아니라 한 몸 된 연합의 신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악한 세상문화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혼은 깨뜨리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쉽게 이혼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엡 5:22~28).

》》》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본문 마태복음 19:13~30 찬송가 563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받아 주시고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기댈 것을 찾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부유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올만큼 겸손했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대신 많은 재물을 선택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이 청년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이에게 천국과 영생은 없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소유욕과 탐심에 붙들려 영생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세상 욕심에 붙들려 있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이 전부임을 믿고 죄인들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십시오.

》》》 기도 제목

어린아이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
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
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
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
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
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
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
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
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
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23일 금요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본문 마태복음 20:1~16 찬송가 310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새로운 천국질서입니다(마 19:30).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이 다른 포도원 일꾼들은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익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삯을 주십니다. 일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에 상당한(4절) 임금을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나중 된 자도 먼저 된 자만큼 주인의 자비와 관대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는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보상을 바라고 머뭇거리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자답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적용합시다.

››› 기도 제목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한 순간도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24일 토요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본문 **마태복음 20:17~28** 찬송가 **216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는 고난의 종(사 53:11~12)이 되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야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에서 유대를 구할 세상의 메시야인 줄 알았으며,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 나라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을 자신들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순종을 거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공동체에서 행사할 힘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온 맘과 온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도리어 목숨을 주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25일 주일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본문 마태복음 20:29~34 찬송가 463장

››› 본문 해설

여리고에서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는 무리의 만류에도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메시야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눈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요, 메시야를 통해 약속된 치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따르는 중에도 세상이 외면한 두 시각장애인의 절규를 모른 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시각장애인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자로 여기시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멸시받던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어두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 기도 제목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29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34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26일 월요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본문 마태복음 21:1~11 찬송가 38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왕이심을 드러내시려는 조치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통치와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평화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좇아 온 사람들은 메시야의 오심을 찬송하는 노래(시 118:25~26)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야를 칭송하는 호산나 찬양 소리에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야이심을 믿고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맘대로 살던 내 인생의 왕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는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왕 되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소서.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
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
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
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
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
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본문 마태복음 21:12~22 찬송가 539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시키고, 제사를 형식적인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지도자들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자신(마 12:6) 안에서 성전의 참 의도가 실현될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셨습니다. 제의만 번창한 성전 제도의 심판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즉시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제자들도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 새로운 '기도의 집'(13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의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형식화되고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하면, 가망 없어 보이는 형식화된 우리 자신과 공동체도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어,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신앙을 벗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
러 엎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
니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
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
여 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
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
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
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
여 곧 말랐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
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본문 **마태복음** 21:23~32 찬송가 204장

》》》 본문 해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 권세를 어디서 받았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제사장, 장로라는 지위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맏아들처럼 약속만 하고 마음은 바꾸지 않는 위선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세리와 창기들처럼 '나중 된 자'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 믿으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 보내신 메시야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성경을 진정으로 인정합니까? 자기 신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9월 29일 목요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본문 마태복음 21:33~46 찬송가 96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지도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속내를 폭로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인을 배반한 농부들처럼 자신들을 정성껏 키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줄기찬 용서와 사랑 앞에 그들은 불순종과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으로 보답했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지만 들 포도만 맺음으로 심판을 경고받은 포도원을 떠올리는 말씀입니다(사 5:1~7). 건축자가 쓸모없다 버린 돌처럼 버림받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건물에 없어서는 안될 모퉁잇돌이자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또 그 돌은 심판하는 돌이 되어,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자 영광의 관문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참뜻을 깨달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철저히 심판받지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열매를 맺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을 보이십니다.

아들까지 죽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나의 모퉁잇돌, 나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를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승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
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
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 후에 자기 아들
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 농부들
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
을 차지하자 하고 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 그
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
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
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
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본문 마태복음 22:1~14 찬송가 528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다시 한 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인 잔치처럼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듭거듭 혼인 잔치에 초대하는데도 사람들은 밭일과 장사를 핑계하며 거절합니다. 심지어 초대장을 전한 종들마저 모욕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 길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데려오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이는 주인과 잔치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부유와 희락이 넘치는 교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잔치를 사모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부유함과 희락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천국 잔치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 묵상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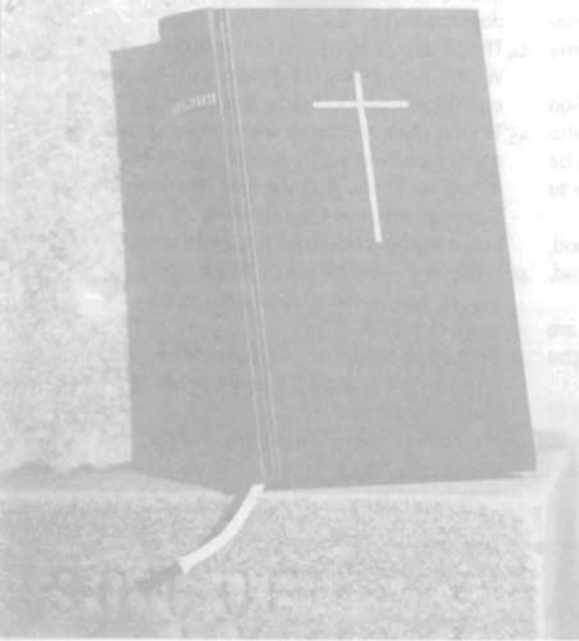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9월 1일 목요일

Matthew 12:22~37

22 Then they brought him a demon-possessed man who was blind and mute, and Jesus healed him, so that he could both talk and see.
23 All the people were astonished and said, "Could this be the Son of David?"
24 But when the Pharisees heard this, they said, "It is only by Beelzebub, the prince of demons, that this fellow drives out demons."
25 Jesus knew their thoughts and said to them, "Ever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will be ruined, and every city or household divided against itself will not stand.
26 If Satan drives out Satan, he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then can his kingdom stand?
27 And if I drive out demons by Beelzebub, by whom do your people drive them out? So then, they will be your judges.
28 But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29 "Or again, how can anyone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carry off his possessions unless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 Then he can rob his house.
30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31 And so I tell you, every sin and blasphemy will be forgiven men, but the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will not be forgiven.
32 An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anyone who speak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either in this age or in the age to come.
33 "Make a tree good and its fruit will be good, or make a tree bad and its fruit will be bad, for a tree is recognized by its fruit.
34 You brood of vipers, how can you who are evil say anything good? For out of the overflow of the heart the mouth speaks.
35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m,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m.
36 But I tell you that men will have to give account on the day of judgment for every careless word they have spoken.
37 For by your words you will be acquitted, and by your words you will be condemned."

9월 2일 금요일

Matthew 12:38~50

38 Then some of th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said to him, "Teacher, we want to see a miraculous sign from you."
39 He answered,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asks for a miraculous sign! But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40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a huge fish, so the Son of Man will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41 The men of Nineveh will stand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now one greater than Jonah is here.
42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listen to Solomon's wisdom, and now one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43 "When an evil spirit comes out of a man, it goes through arid places seeking rest and does not find it.
44 Then it says, 'I will return to the house I left.' When it arrives, it finds the house unoccupied, swept clean and put in order.
45 Then it goes and takes with it seven other spirits more wicked than itself, and they go in and live there. And the final condition of that man is worse than the first. 45 That is how it will be with this wicked generation."
46 While Jesus was still talking to the crowd, his mother and brothers stood outside, wanting to speak to him.
47 Someone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wanting to speak to you."
48 He replied to him,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s?"
49 Pointing to his disciples, he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50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9월 3일 토요일

Matthew 13:1~9

1 That same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sat by the lake.
2 Such large crowds gathered around him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while all the people stood on the shore.
3 Then he told them many things in parables, saying: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4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5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6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7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8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where it produced a crop--a hundred, sixty or thirty times what was sown.
9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9월 4일 주일

Matthew 13:10~30

10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s?"
11 He replied,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12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13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Though seeing, they do not see; though hearing, they do not hear or understand.
14 In them is fulfilled the prophecy of Isaiah: " 'You will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you will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15 For this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16 But blessed are your eyes because they see, and your ears because they hear.
17 For I tell you the truth, many prophets and righteous men longed to see what you see but did not see it, and to hear what you hear but did not hear it.
18 "Listen then to what the parable of the sower means:
19 When anyone hears the message about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es away what was sown in his heart. This is the seed sown along the path.
20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rocky place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at once receives it with joy.
21 But since he has no root, he lasts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he quickly falls away.
22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among the thorn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and the deceitfulness of wealth choke it, making it unfruitful.
23 But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good soil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He produces a crop, yielding a hundred, sixty or thirty times what was sown."
24 Jesus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25 But while everyone was sleeping, his enemy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and went away.
26 When the wheat sprouted and formed heads, then the weeds also appeared.
27 "The owner's servants came to him and said, 'Sir, didn't you sow good seed in your field? Where then did the weeds come from?'
28 " 'An enemy did this,' he replied. "The servants asked him, 'Do you want us to go and pull them up?'
29 " 'No,' he answered, 'because while you are

pulling the weeds, you may root up the wheat with them.
30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t that time I will tell the harvesters: First collect the weeds and tie them in bundles to be burned; then gather the wheat and bring it into my barn.'"

9월 5일 월요일

Matthew 13:31~43

31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field.
32 Though it is the smallest of all your seeds, yet when it grows, it i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and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perch in its branches."
33 He told them still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34 Jesus spoke all these things to the crowd in parables;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35 So was fulfilled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 will open my mouth in parables, I will utter things hidden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36 Then he left the crowd and went into the house.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Explain to us the parable of the weeds in the field."
37 He answered, "The one who sowed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
38 The field is the world, and the good seed stands for the sons of the kingdom. The weeds are the sons of the evil one,
39 and the enemy who sows them is the devil.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age, and the harvesters are angels.
40 "As the weeds are pulled up and burned in the fire, so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41 The Son of Man will send out his angels, and they will weed out of his kingdom everything that causes sin and all who do evil.
42 They will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43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9월 6일 화요일

Matthew 13:44~58

44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en a man found it, he hid it again, and then in his joy went and sold all he had and bought that field.
45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46 When he found one of great value, he went away and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47 "Once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net that was let down into the lake and caught all kinds of fish.
48 When it was full, the fishermen pulled it up on the shore. Then they sat down and collected the good fish in baskets, but threw the bad away.
49 This is how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angels will come and separate the wicked from the righteous
50 and throw them into the fiery furnace,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51 "Have you understood all these things?" Jesus asked. "Yes," they replied.
52 He said to them, "Therefore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a house who brings out of his storeroom new treasures as well as old."
53 When Jesus had finished these parables, he moved on from there.
54 Coming to his hometown, he began teaching the people in their synagogue, and they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is wisdom and these miraculous powers?" they asked.
55 "Isn't this the carpenter's son? Isn't his mother's name Mary, and aren't his brothers James, Joseph, Simon and Judas?
56 Aren't all his sisters with us? Where then did this man get all these things?"
57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But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58 And he did not do many miracles there because of their lack of faith.

9월 7일 수요일

Matthew 14:1~12

1 At that time Herod the tetrarch heard the reports about Jesus,
2 and he said to his attendants, "This is John the Baptist; he has risen from the dead! That i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3 Now Herod had arrested John and bound him and put him in prison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4 for John had been saying to him: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her."
5 Herod wanted to kill John, but he was afraid of the people, because they considered him a prophet.
6 On Herod's birthday the daughter of Herodias danced for them and pleased Herod so much
7 that he promised with an oath to give her whatever she asked.
8 Prompted by her mother, she said, "Give me here on a platte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9 The king was distressed, but because of his oaths and his dinner guests, he ordered that her request be granted
10 and had John beheaded in the prison.
11 His head was brought in on a platter and given to the girl, who carried it to her mother.
12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buried it. Then they went and told Jesus.

9월 8일 목요일

Matthew 14:13~21

13 When Jesus heard what had happened, he withdrew by boat privately to a solitary place. Hearing of this, the crowds followed him on foot from the towns.
14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aled their sick.
15 As evening approached,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This is a remote place, and it's already getting late. Send the crowds away, so they can go to the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 food."
16 Jesus replied,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17 "We have here only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they answered.
18 "Bring them here to me," he said.
19 And he directed the people to sit down on the grass.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 disciples gave them to the people.
20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twelve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21 The number of those who ate was about five thousand men, besides women and children.

9월 9일 금요일

Matthew 14:22~36

22 Immediately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the other side,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23 After he had dismissed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by himself to pray. When evening came, he was there alone,
24 but the boat was already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land, buffeted by the wave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it.
25 During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Jesus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26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were terrified. "It's a ghost," they said, and cried out in fear.
27 But Jesus immediately said to them: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28 "Lord, if it's you," Peter replied,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29 "Come," he said. Then Peter got down out of the boat,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30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cried out, "Lord, save me!"
31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You of little faith," he said, "why did you doubt?"
32 And when they climbed into the boat, the wind died down.
33 Then those who were in the boat worshiped him,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34 When they had crossed over, they landed at Gennesaret.
35 And when the men of that place recognized Jesus, they sent word to all the surrounding country. People brought all their sick to him
36 and begged him to let the sick just touch the edge of his cloak, and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9월 10일 토요일

Matthew 15:1~20

1 Then som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came to Jesus from Jerusalem and asked,
2 "Why do your disciples break the tradition of the elders? They don't wash their hands before they eat!"
3 Jesus replied, "And why do you break the command of God for the sake of your tradition?
4 For God sai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must be put to death.'
5 But you say that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help you might otherwise have received from me is a gift devoted to God,'
6 he is not to 'honor his father' with it.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for the sake of your tradition.
7 You hypocrites! Isaiah was right when he prophesied about you:
8 "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9 They worship me in vain; their teachings are but rules taught by men.'"
10 Jesus called the crowd to him and said, "Listen and understand.
11 What goes into a man's mouth does not make him 'unclean,' but what comes out of his mouth, that is what makes him 'unclean.'"
12 Then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Do you know that the Pharisees were offended when they heard this?"
13 He replied, "Every plant that my heavenly Father has not planted will be pulled up by the roots.
14 Leave them; they are blind guides. If a blind man leads a blind man, both will fall into a pit."
15 Peter said, "Explain the parable to us."
16 "Are you still so dull?" Jesus asked them.
17 "Don't you see that whatever enters the mouth goes into the stomach and then out of the body?
18 But the things that come out of the mouth come from the heart, and these make a man 'unclean.'
19 For out of the heart come evil thoughts, murder, adultery, sexual immorality, theft, false testimony, slander.
20 These are what make a man 'unclean'; but eating with unwashed hands does not make him 'unclean.'"

9월 11일 주일

Matthew 15:21~28

21 Leaving that place, Jesus withdrew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22 A Canaanite woman from that vicinity came to him, crying out,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possession."
23 Jesus did not answer a word.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urged him, "Send her away, for she keeps crying out after us."
24 He answere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Israel."
25 The woman came and knelt before him. "Lord, help me!" she said.
26 He replied,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27 "Yes, Lord," she said, "bu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28 Then Jesus answered,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And her daughter was healed from that very hour.

9월 12일 월요일

Matthew 15:29~39

29 Jesus left there and went along the Sea of Galilee. Then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30 Great crowds came to him, bringing the lame, the blind, the crippled, the mute and many others, and laid them at his feet; and he healed them.
31 The people were amazed when they saw the mute speaking, the crippled made well, the lame walking and the blind seeing. And they praised the God of Israel.
32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they have already been with me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I do not want to send them away hungry, or they may collapse on the way."
33 His disciples answered, "Where could we get enough bread in this remote place to feed such a crowd?"
34 "How many loaves do you have?" Jesus asked. "Seven," they replied, "and a few small fish."
35 He tol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36 Then he took the seven loaves and the fish,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and they in turn to the people.
37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fterward the disciples picked up seven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38 The number of those who ate was four thousand, besides women and children.
39 After Jesus had sent the crowd away, he got into the boat and went to the vicinity of Magadan.

9월 13일 화요일

Matthew 16:1~12

1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Jesus and tested him by asking him to show them a sign from heaven.
2 He replied, "When evening comes, you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sky is red,'
3 and in the morning, 'Today it will be stormy, for the sky is red and overcast.'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but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s of the times.
4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looks for a miraculous sign, but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Jesus then left them and went away.
5 When they went across the lake, the disciples forgot to take bread.
6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7 They discussed this among themselves and said, "It is because we didn't bring any bread."
8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talking among yourselves about having no bread?
9 Do you still not understand? Don't you remember the five loaves for the five thousand,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10 Or the seven loaves for the four thousand, and how many basketfuls you gathered?
11 How is it you don't understand that I was not talking to you about bread? But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12 Then they understood that he was not telling them to guard against the yeast used in bread, but against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9월 14일 수요일

Matthew 16:13~20

13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14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15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16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17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18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19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20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9월 15일 목요일

Matthew 16:21~28

21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22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23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25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26 What good will it be for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yet forfeits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27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his Father's glory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28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9월 16일 금요일

Matthew 17:1~13

1 After six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2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3 Just then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4 Peter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I will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5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bright cloud enveloped them, and a voice from the cloud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6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fell facedown to the ground, terrified.
7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 "Get up," he said. "Don't be afraid."
8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9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instructed them, "Don't tell anyone what you have seen, until the Son of Man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10 The disciples asked him, "Why then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1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comes and will restore all things.
12 But I tell you,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is going to suffer at their hands."
13 Then the disciples understood that he was talking to them about John the Baptist.

9월 17일 토요일

Matthew 17:14~21

14 When they came to the crowd, a man approached Jesus and knelt before him.
15 "Lord, have mercy on my son," he said. "He has seizures and is suffering greatly. He often falls into the fire or into the water.
16 I brought him to your disciples, but they could not heal him."
17 "O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here to me."
18 Jesus rebuked the demon, and it came out

of the boy, and he was healed from that moment.

19 Then the disciples came to Jesus in private and asked, "Why couldn't we drive it out?"

20 He replied,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21

9월 18일 주일

Matthew 17:22~27

22 When they came together in Galilee,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23 They will kill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to life."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grief.

24 After Jesus and his disciples arrived in Capernaum, the collectors of the two-drachma tax came to Peter and asked, "Doesn't your teacher pay the temple tax?"

25 "Yes, he does," he replied. When Peter came into the house, Jesus was the first to speak. "What do you think, Simon?" he asked. "From whom do the kings of the earth collect duty and taxes--from their own sons or from others?"

26 "From others," Peter answered. "Then the sons are exempt," Jesus said to him.

27 "But so that we may not offend them, go to the lake and throw out your line. Take the first fish you catch; open its mouth and you will find a four-drachma coin. Take it and give it to them for my tax and yours."

9월 19일 월요일

Matthew 18:1~14

1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2 He called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3 And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4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5 "And whoever welcomes a little child like this in my name welcomes me.

6 But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have a large millstone hung around his neck and to be drowned in the depths of the sea.

7 "Woe to the world because of the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 Such things must come, but woe to the man through whom they come!

8 If your hand or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maimed or crippled than to have two hands or two feet and be thrown into eternal fire.

9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with one eye than to have two eyes and be thrown into the fire of hell.

10 "See that you do not look down on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tell you that their angels in heaven always see the face of my Father in heaven.

11

12 "What do you think? If a man owns a hundred sheep, and one of them wanders away, will he not leave the ninety-nine on the hills and go to look for the one that wandered off?

13 And if he finds it, I tell you the truth, he is happier about that one sheep than about the ninety-nine that did not wander off.

14 In the same way your Father in heaven is not willing that any of these little ones should be lost.

9월 20일 화요일

Matthew 18:15~35

15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show him his fault, just between the two of you.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won your brother over.

16 But if he will not listen, take one or two others along, so that 'every matter may be established by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17 If he refuses to listen to them, tell it to the church; and if he refuses to listen even to the church, treat him as you would a pagan or a tax collector.
18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19 "Again, I tell you that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you ask for, it will be done for you by my Father in heaven.
20 For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21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Up to seven times?"
22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seven times, but seventy-seven times.
23 "Therefor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want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ervants.
24 As he began the settlement, a man who owed him ten thousand talents was brought to him.
25 Since he was not able to pay, the master ordered that he and his wife and his children and all that he had be sold to repay the debt.
26 "The servant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Be patient with me,' he begged, 'and I will pay back everything.'
27 The servant's master took pity on him, canceled the debt and let him go.
28 "But when that servant went out, he found one of his fellow servants who owed him a hundred denarii. He grabbed him and began to choke him. 'Pay back what you owe me!' he demanded.
29 "His fellow servant fell to his knees and begged him, 'Be patient with me, and I will pay you back.'
30 "But he refused. Instead, he went off and had the man thrown into prison until he could pay the debt.
31 When the other servants saw what had happened,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and went and told their master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32 "Then the master called the servant in. 'You wicked servant,' he said, 'I canceled all that debt of yours because you begged me to.
33 Shouldn't you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just as I had on you?'
34 In anger his master turned him over to the jailers to be tortured, until he should pay back all he owed.
35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9월 21일 수요일

Matthew 19:1~12

1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he left Galile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to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2 Large crowds followed him, and he healed them there.
3 Some Pharisees came to him to test him. They asked,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and every reason?"
4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5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6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an not separate."
7 "Why then," they asked, "did Moses command that a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8 Jesus replied,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9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marital unfaithfulness,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10 The disciples said to him, "If this is the situa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it is better not to marry."
11 Jesus replied, "Not everyone can accept this word, but only those to whom it has been given.
12 For some are eunuchs because they were born that way; others were made that way

by men; and others have renounced marriagebecause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one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9월 22일 목요일

Matthew 19:13~30

13 Then little children were brought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s on them and pray for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ose who brought them.
14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15 When he had placed his hands on them, he went on from there.
16 Now a man came up to Jesus and asked, "Teach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17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Jesus replied. "There is only One who is good. If you want to enter life, obey the commandments."
18 "Which ones?" the man inquired. Jesus replied, "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19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20 "All these I have kept," the young man said. "What do I still lack?"
21 Jesus answered,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22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23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tell you the truth, it is hard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24 Again I tell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25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and asked, "Who then can be saved?"
26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27 Peter answered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What then will there be for us?"
28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at the renewal of all things, when the Son of Man sits on his glorious throne,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twelv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29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30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9월 23일 금요일

Matthew 20:1~16

1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men to work in his vineyard.
2 He agreed to pay them a denarius for the day and sent them into his vineyard.
3 "About the third hour he went out and saw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
4 He told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and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5 So they went. "He went out again about the sixth hour and the ninth hour and did the same thing.
6 About the eleventh hour he went out and found still others standing around. He asked them,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doing nothing?'
7 " 'Because no one has hired us,' they answered. "He said to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8 "When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foreman, 'Call the work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ones hired and going on to the first.'
9 "The workers who were hired about the eleventh hour came and each received a denarius.
10 So when those came who were hired first,

they expected to receive more. But each one of them also received a denarius.
11 When they received it, they began to grumble against the landowner.
12 'These men who were hired last worked only one hour,' they said,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work and the heat of the day.'
13 "But he answered one of them, 'Friend, I am not being unfair to you. Didn't you agree to work for a denarius?
14 Take your pay and go. I want to give the man who was hired last the same as I gave you.
15 Don't I have the right to do what I want with my own money? Or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16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9월 24일 토요일

Matthew 20:17~28

17 Now as Jesus was going up to Jerusalem, he took the twelve disciples aside and said to them,
18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19 and will turn him over to the Gentiles to be mocked and flogged and crucifie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to life!"
20 Then the mother of Zebedee's sons came to Jesus with her sons and, kneeling down, asked a favor of him.
21 "What is it you want?" he asked. She said, "Grant that one of these two sons of mine may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kingdom."
22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to them. "Can you drink the cup I am going to drink?" "We can," they answered.
23 Jesus said to them, "You will indeed drink from my cup, but to sit at my right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by my Father."
24 When the ten heard about this, they were indignant with the two brothers.
25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26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27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28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9월 25일 주일

Matthew 20:29~34

29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leaving Jericho, a large crowd followed him.
30 Two blind men were sitting by the roadside, and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going by, they shouted,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31 The crowd rebuked them and told them to be quiet,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us!"
32 Jesus stopped and called them.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33 "Lord," they answered, "we want our sight."
34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and touched their eyes. Immediately they received their sight and followed him.

9월 26일 월요일

Matthew 21:1~11

1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disciples,
2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with her colt by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3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tell him that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4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5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6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7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placed their cloaks on them, and Jesus sat on them.
8 A very larg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9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hi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10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11 The crowds answered,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9월 27일 화요일

Matthew 21:12~22

12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13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14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at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15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saw the wonderful things he did and the children shouting in the temple are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were indignant.
16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they asked him. "Yes," replied Jesus, "have you never read, "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17 And he left them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where he spent the night.
18 Early in the morning, as he was on his way back to the city, he was hungry.
19 Seeing a fig tree by the road, he went up to it but found nothing on it except leaves. Then he said to it,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Immediately the tree withered.
20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amazed. "How did the fig tree wither so quickly?" they asked.
21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not only can you do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also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it will be done.
22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9월 28일 수요일

Matthew 21:23~32

23 Jesus entered the temple courts, and, while he was teaching,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ame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asked.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24 Jesus replied, "I will also ask you one question. If you answer me,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25 John's baptism--where did it come fro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Then why didn't you believe him?'
26 But if we say, 'From men'--we are afraid of the people, for they all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27 So they answered Jesus, "We don't know." Then he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28 "What do you think?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He went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and work today in the vineyard.'
29 " 'I will not,' he answered,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30 "Then the father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thing. He answered, 'I will, sir,' but he did not go.
31 "Which of the two did what his father wanted?" "The first,"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re entering the kingdom of God ahead of you.
32 For John came to you to show you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you did not believe him, but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did. And even after you saw this, you did not repent and believe him.

9월 29일 목요일

Matthew 21:33~46

33 "Listen to another parable: There was a landowner who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winepress in it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34 When the harvest time approached, he sent his servants to the tenants to collect his fruit.
35 "The tenants seized his servants; they beat one, killed another, and stoned a third.
36 Then he sent other servants to them, more than the first time, and the tenants treated them the same way.
37 Last of all, he sent his son to them. 'They will respect my son,' he said.
38 "But when the tenants saw the son, they said to each 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ake his inheritance.'
39 So they took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40 "Therefore, w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comes, what will he do to those tenants?"
41 "He will bring those wretches to a wretched end," they replied, "and he will rent the vineyard to other tenants, who will give him his share of the crop at harvest time."
42 Jesus said to them, "Have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43 "Therefore I tell you that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a people who will produce its fruit.
44 He who falls on this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but h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45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eard Jesus' parables, they knew he was talking about them.
46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because the people held that he was a prophet.

9월 30일 금요일

Matthew 22:1~14

1 Jesus spoke to them again in parables, saying:
2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prepared a wedding banquet for his son.
3 He sent his servants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to the banquet to tell them to come, but they refused to come.
4 "Then he sent some more servants and said, 'Tell those who have been invited that I have prepared my dinner: My oxen and fattened cattle have been butchered, and everything is ready. Come to the wedding banquet.'
5 "But they paid no attention and went off--one to his field, another to his business.
6 The rest seized his servants, mistreated them and killed them.
7 The king was enraged. He sent his army and destroyed those murderers and burned their city.
8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The wedding banquet is ready, but those I invited did not deserve to come.
9 Go to the street corners and invite to the banquet anyone you find.'
10 So the servants went out into the streets and gathered all the people they could find, both good and bad, and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guests.
11 "But when the king came in to see the guests, he noticed a man there who was not wearing wedding clothes.
12 'Friend,' he asked, 'how did you get in here without wedding clothes?' The man was speechless.
13 "Then the king told the attendants, 'Tie him hand and foot, and throw him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14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9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편집인 | 권명옥, 집필진 | 김성은 주영진 이향란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